

[**종합**]

“워크아웃 기업 조속 지원”

금감원, 채권단에 당부

금융감독원은 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의 결제자금 등 영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전이라도 조속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법인카드 사용 중지 등 일부 은행 영업점의 금융제한 조치를 풀도록 했다. 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사 가운데 지금까지 12곳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대동종합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채권단은 이날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희뉴스

“구조조정 건설사 조기 지원”

대한주택건설협, 정부에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해 보증기관이 신규 분양보증 심사를 미뤄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조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일부 기업이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우려되는 등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C&중 협력사 특별보증”

전남도 건의

전남도는 C&중공업 퇴출절정으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보증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3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C&중공업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해 줄 것과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정부의 사업 전환 자금 중 일부를 특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C&중공업 협력업체들은 정부·지자체의 지원 약속에도 답보상태와 미미한 은행거래 실적 등으로 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운태 의원 무죄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 등의 이유로 그동안 늦춰져 왔던 강운태 의원의 민주당 입당 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원봉사자인 서 모씨가 돈 봉투를 받게 된 경위와 돈을 보관한 장소, 기간,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증거가 부족했다”며 “또, 돈 봉투 지문 감식 결과 강 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고 무죄 확정 배경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수엑스포 지원사업 76개 발굴

전남도, SOC·관광 등 총력지원체제 구축

전남도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 및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6건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30일, 박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계획 보고회’를 열고 도청 각 실국에서 발굴한 76건의 박람회 지원계획을 검토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박람회관련 SOC 확충사업이 17건에 8조5천400억 원, 관광분야 11건에 3조6천261억 원, 해양환경분야 17건에 1조7천157억 원 그리고 가로경관 등 기타사업 31건에 2천664억 원 규모다.

전남도는 이들 76건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별한 뒤,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도 추진 사업, 일선 시·군 자체사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의 이 같은 방침은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중앙조직위원회와 전남도, 여수시, 그리고 시·군별로 각종 의견들이 난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박람회 개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당시 여수시민과 도민의 열정이 박람회 유치를 이끌어 냈듯, 앞으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신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800만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여수와 전남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

30일 광주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주부교실광주광역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수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년 경상수지 11년만에 첫 적자

64억 달러 ... 이성태 총재 “올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가 외환 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도 지난 1970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8년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64억1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1997년(-82억9천만 달러) 이후 처음으로, 적자 규모도 한은이 예상한 45억 달러보다 다소 늘었다.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경상수지를 자랑해오던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21.8%)이 수출(14.3%)보다 늘어나 전년의 281억7천만 달러에서 59억9천만 달러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1970년 1월 이후부터 광공업 생

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12월 증가율은 이 중 최저치로, 생산부문의 최근 4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모임에서 “지난해 4분기를 경기침체의 시작으로 본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양商議 설립 ‘일단 스톱’

광주지법, 순천·광양상의측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 설립 움직임에 반발해 순천·광양상의가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30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

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 인가 조치는 반년(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최경희기자 squeeze@

재판부 관계자는 “집행정지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 반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는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으로 순천상의(가칭)의 위상이 격하될 것을 우려해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개의 상의를 중복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도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희기자 squeeze@

시 설

갈수록 심각한 인터넷 중독, 정부가 나서라

요즘처럼 아이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방학기간엔 부모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조금이라도 더 컴퓨터를 하려는 아이와 신경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이 낳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 초·중·고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이 4만명(조사대상 1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인터넷중독으로 볼 수 있는 초등학생도 10만명이나 됐다.

최근 광주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상담센터)의 상담건수도 이같은 실태를 입증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는 1천441건으로

2007년(752건)에 비해 무려 90.9% 증가했다. 문제는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센터의 경우 현재 소장 혼자서 전화 및 면접, 학교 과전 집단상담 등을 도맡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전화도 통화중일 때가 많고 면접상담을 위해선 전화예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자 가운데 일부는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들이 건전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학교·가정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멍뚫린 민생치안, 끊이지 않는 ‘연쇄살인’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지역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을 살해해 모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문지마 살인 행각은 범행동기나 범죄과정에서 드러난 치밀함과 잔혹함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섬뜩하기만 하다.

문제는 연쇄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비롯해 2004년 1월~2006년 4월 모두 13명을 숨지게 한 정남규, 1999년 6월~2000년 4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부유층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 2000년 이후 연쇄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포악한 세상이다.

강씨가 2년에 걸쳐 경기 서남부 지역을 휘저으며 문지마 식 살인을 저지른 데는 미흡한 초동수사가 발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거나 사건은 폐의 문지마 살인 행각은 범행동기나 범죄과정에서 드러난 치밀함과 잔혹함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섬뜩하기만 하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을 다짐했다. 그런데도 흉악·강력 범죄는 넘쳐난다. ‘대국민 약속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다. 시국치안에 밀려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문지마 살인’은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차제에 ‘민생치안’ 체감지수가 바닥수준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치안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재정비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 **장·차관 프로필** /

4·9총선때 여의도 입성 학자 출신 행정전문가

이달곤 행안부 장관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로서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조각(組閣) 때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물망에 올랐었다.

서울대 공대 학사 출신이지만, 출근 행정학자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행정학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지방행정과 협상학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학자로 정치권과는 제17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4.9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합리적이고 온화한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경남 창원(56) ▲서울대 공대 ▲하버드대 정책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8대 국회의원

산업·통상 두루 섭렵 정통 상공관료

김영학 지경부 2차관

산업과 통상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통 상공관료 출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들어와 소재산업과 수송기계과장 등 산업정책분야를 담당했다. 또 서기관 승진 이전부터 제네바 대표부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섬유협상을 맡는 등 통상 관련 경험도 많다.

▲1956년 강원 춘천 ▲대광고.연세대 법학과.경영학박사(성균관대) ▲행정고시 24회 ▲산업자원부 수송기계과장 ▲총무과장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연희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0-521> <F A X 220-551>
정리부 2200-634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1부 2200-612 <F A X 222-4267>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정계은퇴가 빠른텐데 ...

“영산강프로젝트·투자 유치 주력”

박준영 지사 나주·화순 ‘도민과 대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0일 나주시를 시작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순방에 나섰다. 박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과 화순군청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영산강프로젝트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지사는 “세계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올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도민들이 합심해서 잘사는 전남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또 “영산강프로젝트는 영산강으로 모이는 지천과 주변에 무엇을 하는 게 좋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0일 나주시청에서 신정훈 나주시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은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속발전이 가능한 영산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